

9월의 계란전망

강재명
본회 지도조사부 과장

“초순 강제가 추석후 하락세로 급변할 듯”

예상된 계란값 상승세에서 나타나는 등급간 가격 폭이 커지면서 특란으로 계란시세를 유지하는 이상 현상으로 수급의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이것이 작년도 난가불황의 후유증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 같다.

즉 특란은 크게 부족하고 잔알은 남아도는 현상으로 보아 향후 계란 과잉생산 징후가 아닌가 싶어 우려되고 특란시세의 강제로 환우를 하겠다는 농장들이 늘어날 추세도 배제할 수 없어 난가불황의 재현이 되지 않을까 전업계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때다.

□8월은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중순경 이후 소비 증가와 더불어 추석 특수로 인해 상승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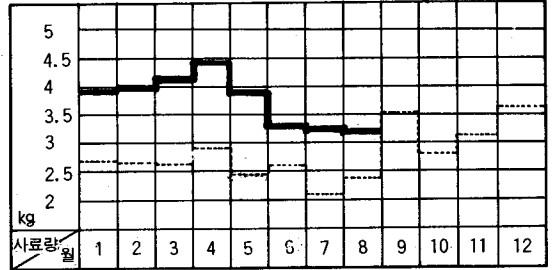
7월 사료생산 측면에서 보면 육추사료는 27,416%로 87년의 수준과 비슷하였으나 88년에 비하면 20% 증가하였다. 초생추사료는 4,184%로 87년 4,120%과 비슷하고 88년 2,448%에 비하면 큰 폭의 증가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산란사료는 110,113%로 계란호황과 잘 어울리며

표 1. 산란용 P.S 입식현황

년도별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비고
88	52.0	21.5	16.1	27.9	65.6	38.4	8.3	41.9	2.9	24.0	49.4	55.6	403.6	실제입추수수
89	88.5	40.1	22.5	37.2	63.1	36.7	2.7							(수입계포함)
89	45.3	31.8	28.7	68.6	49.4	25.4	25.8	17.0	21.5	16.5	27.8	50.8	408.6	89년국내P.S 생산계획량

대란10개로 살수있는 산란사료량



---88년---89년

87, 88년에 비해 6%, 11%의 감소추세로 보아 향후 단기내 큰 불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9월의 계란값은 추석을 전후한 경기가 대조적으로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예년보다 앞당겨 계란값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계란생산패턴을 보면 금년 1월부터 입식된 계군의 시산이 시작되면서 초산란의 증가가 두드러져 약세권을 맴돌고 있었으나 88년 6월 이후 병아리 입식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특란 생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계란값을 그나마 지탱하여 온 것 같다.

추석이후는 3월, 4월 계군까지 계속 생산에 가담함에 따라 특란생산량도 서서히 증가추세로서 잔알의 과잉으로 인하여 추석이전과 반대로 잔알의 시세가 특란의 시세를 내리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10월 중순까지는 약세권에서 맴돌 것으로 노계출하를 앞당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병아리생산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2월의 PS 입식이 많아 본격적인 가을추 생산에·가담함에 따라 물량과잉이 우려되면서 내년도 계란값에도 먹구름으로 작용할 것 같고 더불어 병아리값 역시 예상밖의 약세권에서 허덕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량중추분양
봉래농장

(02)511-0038, (0417)63-8402

그림 1. 대란고시가격(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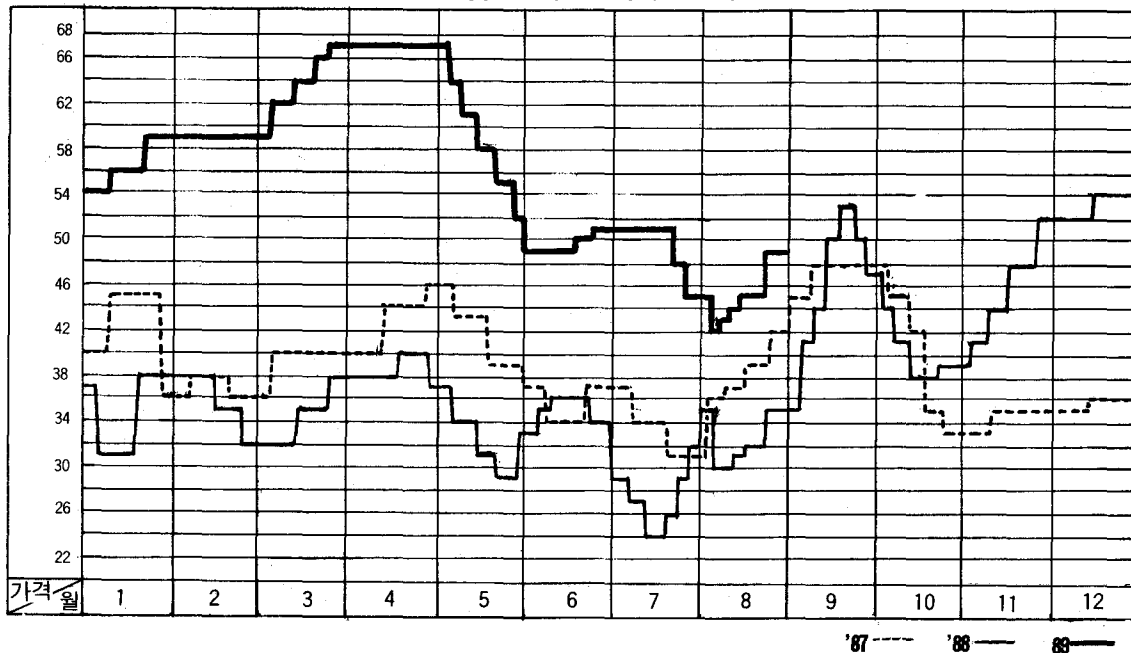


그림 2. 배합사료 생산실적

